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

이전*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Housing in Ulleungdo Mountains

Jeon Lee*

요약 : 이 연구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에 초점을 두고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 유형을 제주도와 경남의 촌락 가옥 유형과 비교하면서 그 특성도 논의한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를 보면, 팔작지붕(42.1%)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맞배지붕(25.8%), 우진각지붕(11.8%), 단순평지붕(10.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지붕 재료를 보면, 컬러강판(69.1%), 아스팔트싱글(11.8%), 시멘트(10.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은 한 채도 없다. 그리고 외벽 재료에서는 시멘트(27.5%), 사이딩(21.3%), 합석(16.8%), 목재(6.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팔작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73채; 41.0%)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32채; 18.0%)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외벽 재료로 합석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 적벽돌이나 석재를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 등은 건축 자재의 운송비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팔작지붕, 합석.

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mporary rural hous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oof types/materials and the outer wall materials in Ulleungdo Mountains. The most frequent roof type of rural housing is the hip-and-gable roof type(42.1%); and the next, the gable roof type(25.8%). For the roof materials, the precoated steel plate(69.1%), the asphalt shingle(11.8%), and the cement(10.7%) are the most frequent but the roofing tile and the artificial slate are not used. And for the outer wall materials, the cement(27.5%), the siding(21.3%), the corrugated galvanized iron(16.8%), and the lumber sheet(6.7%) are the most frequent. It is the hip-and-gable roof housing type with the precoated steel plate(roof materials)(41%), or the hip-and-gable roof housing type with the precoated steel plate(roof materials) and the cement(outer wall material)(18.0%) that is the most frequent type of rural housing in Ulleungdo Mountains. For the roof/wall materials, the ratio of the corrugated galvanized iron is high probably due to the relatively low cost of transport, and the ratio of the roofing tile, the artificial slate, the red brick, and the building stone is very low probably due to the relatively high cost of transport.

Key Words : roof type, roof materials, outer wall materials, hip-and-gable roof, corrugated galvanized iron

이 연구는 2016년도 경상대학교 연구년제연구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glee@gnu.ac.kr

1. 머리말

1) 연구목적

울릉도의 투방집은 매우 독특한 울릉도 전통가옥(vernacular housing) 혹은 민가(folk housing)였다. 투방집은 통나무를 우물 정(井)자로 쌓아올려 벽을 만든 집이었다. 울릉도 투방집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통나무와 진흙으로만 지었다. 통나무를 방 한 칸 길이보다 조금 길게 잘라서 양쪽 끝에 아래위로 홈을 판 다음, 이 홈에 맞추어 통나무를 직교상으로 쌓아올려 벽을 만들었다. 통나무 사이의 빈 공간은 진흙으로 메워서 마무리하였다. 투방집은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는 귀틀집, 평안남도에서는 방틀집 또는 목채집, 평안북도 와 강원도에서는 틀목집 등으로도 불렸다(장보웅, 1977; 1996). 그런데 울릉도 촌락에서 투방집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 오늘날 울릉도 투방집은 나리분지에서 4~5채 찾아 볼 수 있을 뿐인데, 그것도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옥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은 아니다.

울릉도의 전통가옥 혹은 민가에서는 지붕의 처마 끝 안쪽에 여러 개의 가는 기둥을 둘러 세우고 출입구만은 비워둔 채 역새로 이엉을 엮거나 목재로 막아 새로운 벽을 만드는데, 이것을 우데기라 하였다. 방벽과 우데기 사이의 공간을 축담이라 불렀는데, 이곳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두었다. 축담은 눈이 많이 쌓이는 겨울 동안에는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출입구에는 싸리나 역새로 엮은 발을 달아서 비바람이 불 때에는 내려뜨려 비바람이 축담에 들이치는 것을 막았다(장보웅, 1996; 조성기, 2006). 그런데 울릉도 촌락 가옥의 우데기와 축담도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과거의 우데기 벽에 골함석을 덧씌워서 외벽을 만든 가옥, 과거의 축담에 보일러를 깔아 방이나 저장고 등으로 개조한 가옥, 과거의 우데기 출입구에 알루미늄 새시 유리문 현관을 달아 사용하는 가옥 등은 상당수 남아있으나, 오늘날 울릉도의 촌락 가옥에서 전형적인 우데기와 축담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지리학계는 오랫동안 전통가옥 혹은 민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¹⁾ 이러한 한국지리학계의 연구 업적이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기후 조건에 적응한 생활 모습의 사례로 전통가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우데기가 갖추어진 울릉도 가옥, 정주간 가옥 구조를 가진 관북형 가옥, 대청마루 가옥 구조를 가진 남부형 가옥, 아궁이 방향이 다른 제주도형 가옥 등 전통가옥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가옥의 유형은 과거의 가옥 유형일 수는 있으나 결코 오늘날의 가옥 유형은 아닌 것이다(이전·이호욱, 2015). 필자는 여러 차례 울릉도를 답사하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에 관한 접근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울릉도 촌락에서 전형적인 투방집이나 우데기를 찾아볼 수 없는데, 왜 한국지리학계에는 울릉도의 투방집이나 우데기가 널리 알려져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까?

필자는 한국지리학계에서 오늘날의 한국 촌락 가옥이나 경관에 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한국 전통가옥의 유형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촌락 가옥 유형이나 촌락 경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울릉도의 촌락에는 우데기가 갖추어진 투방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울릉도 촌락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촌락 가옥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를 촌락 가옥 경관의 가장 주요한 형태적 요소로 보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울릉도의 촌락 가옥을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과 비교하는 작업은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등에 초점을 두고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논문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도 촌락 가옥을 한국 전체의 촌락 가옥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이전, 2016), 경남 고성군(이전·채민수, 2015), 경남 남해도서(이전·성화룡, 2015), 경남 함양군(이전·이호욱, 2015; 이호욱, 2016)의 촌락 가옥에 관한 연구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락 가옥을 이러한 지역의 촌락 가옥과 비교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제주도 촌락, 경남 고성군 촌락, 경남 남해도서 촌락, 경남 함양군 촌락 등의 가옥과 비교해보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촌락과 연구대상 가옥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독도와 더불어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 울릉군의 현재(2016년 3월) 인구는 10,065 명에 달한다. 울릉군의 인구는 한 때(1974년) 3만여 명에 달했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2000년경부

터 현재까지는 1만여 명을 유지하였다.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1읍(울릉읍)·2면(서면·북면)으로 구성된다.²⁾ 울릉읍은 4개의 법정리로, 그리고 서면과 북면은 각각 3개의 법정리로 구분된다. 울릉군의 법정리는 1~4개의 행정리로 구분되는데, 울릉군 10개 법정리는 총 25개의 행정리로 구분된다. 그리고 울릉군의 행정리는 각각 1~4개의 자연마을로 다시 구분되는데, 울릉군의 25개 행정리에 소속된 자연마을은 총 57개에 달한다.

이 연구의 연구지역 촌락은 울릉군의 10개 법정리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리, 또한 읍사무소와 면사무소가 위치하는 도동리·남양리·천부리를 제외한 6개 법정리에서 각각 1~2개 촌락을 선택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저동향·도동향·사동향·남양향·태하향·현포향·천부향 등을 비롯한 해안 취락에는 관광업·상업·교통·행정 기능 등의 도시적 기능이 비교적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의 산지 촌락만을 연구지역 촌락으로 설정한다. 특정 산지 촌락의 대략적인 가옥 수를 1:25,000 지형도를 통해서

표 1.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9개의 촌락

| 읍면 | 법정리 | 행정리 | 연구지역 번호: 촌락 명칭 |
|------|-----|---------------|-------------------|
| 울릉읍 | 도동리 | 도동1·2·3리 | 울릉읍사무소 소재지 |
| | 저동리 | 저동1리 |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
| | | 저동2리 | ❶ 저동2리 산지 촌락 |
| | | 저동3리 |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
| | 사동리 | 사동1리 |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
| 사동2리 | | ❷ 안평전 | |
| 사동3리 | |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 |
| 독도리 | 독도리 |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 |
| 서면 | 남양리 | 남양1·2·3리 | 서면사무소 소재지 |
| | 남서리 | 남서1리 | ❸ 본마을(나발등 포함) |
| | | 남서2리 |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
| | 태하리 | 태하1리 | ❹ 서달령 |
| | | 태하2리 | ❺ 학포(해안마을 제외) |
| 북면 | 천부리 | 천부1·2·3·4리 | 북면사무소 소재지 |
| | 현포리 | 현포1리 | ❻ 잣만등 |
| | | 현포2리 | ❼ 평리(울릉순환로 인근 제외) |
| | 나리 | 추산리 | ❽ 추산(울릉순환로 인근 제외) |
| 나리 | | ❾ 나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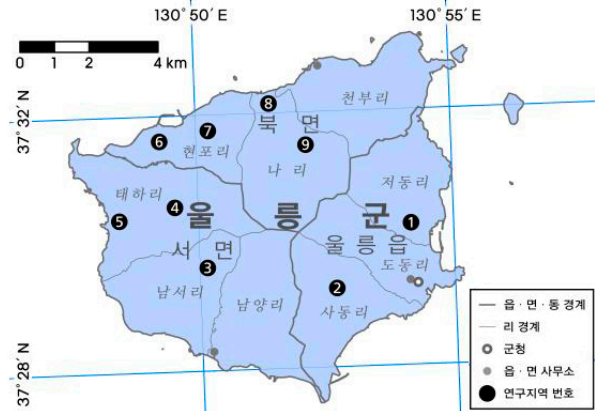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촌락의 위치

이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형도를 통해 연구지역 촌락을 잠정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해 9~10채 이상의 가옥을 가진 촌락으로 확인되면, 연구지역 촌락으로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한 연구지역 촌락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9개 산지 촌락인데, 이 9개 촌락의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가옥은 농가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노인회관, 교회 건물, 펜션, 민박집, 관광용 가옥³⁾등을 포함한다. 농사철에만 들어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농가도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특정한 농가의 대지에 바깥채나 부속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취침용 방을 중심으로 한 주 건축물인 몸채만을 연구대상 가옥으로 삼고, 바깥채나 부엌·보일러·현관 등의 부속 건물은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한 농가의 대지에 들어서 있는 창고는 연구대상 가옥에서 제외하지만, 밭 가운데 혹은 밭 가장자리에 입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가옥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비워둔 폐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폐가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폐가라고 보이는 가옥이 실제로는 농사철에 일시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가옥이 폐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옥을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9개 연구지역 촌락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가옥은 총 178채이다.

3) 연구방법

필자는 울릉도를 여러 차례 답사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답사를 통하여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수집해두었다. 다만, 이 연구를 위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수행하였다. 집중적인 현지조사에서는 울릉도 9개 연구지역 촌락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가옥 178채를 대상으로 해서 표 2와 같은 조사지를 통해 가옥의 주소,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복층 여부, 측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근래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대다수 촌락 가옥의 입구 혹은 벽면에 도로명주소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가옥의 주소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사지붕의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외쪽지붕으로 구분하였고,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형태와 변형된 형태로 구분하였다. 평지붕의 지붕 형태는 단순평지붕과 눈썹평지붕으로 구분하였다.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는 겉으로 보이는 재료를 그대로 기입하였다. 복층 여부를 기록하는 칸에는 촌락 가옥의 대다수가 단층이기 때문에 복층의 경우에만 표시해두었다. 측입 여부를 기록하는 칸에는 가옥의 측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비교란에 기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가옥 178채에 대한 조사

표 2. 연구대상 가옥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지

울릉군 _____ 읍(면) _____ 리 (촌락명) _____

| 번호 | 주소 | 지붕 형태 | 지붕 재료 | 외벽 재료 | 복층? | 측입? | 비고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36 | | | | | | | |

결과를 분석한다. 맨 먼저 울릉도 촌락 가옥의 다양한 지붕 형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붕 형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를 분석하는데, 이 연구에서 재료 분류의 기준은 가장 바깥쪽의 재료(마감재)이다. 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일 재료와 복수 재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에 따라 촌락 가옥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락 가옥의 특성을 제주도와 경남의 촌락 가옥 특성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2.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에 대한 분석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다양한 지붕 형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형적인 지붕 형태뿐만 아니라 그 변형 및 결합을 포함하는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특정한 형태로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붕들을 기초단위지붕이라고 한다면, 연구대상 가옥의 기초단위지붕으로는 그림 2와 같이 ‘팔작지붕(hip-and-gable roof)’, ‘맞배지붕(gable roof)’, ‘우진각지붕(hip roof)’, ‘외쪽지붕(shed roof)’, ‘단순평지붕(simple-flat roof)’, ‘눈썹평지붕(eyebrow-and-flat roof)’, ‘맞배변형지붕(deformed-gable roof)’, ‘우진각변형지붕(deformed-hip roof)’의 여덟 가지가 나타난다(이전·성화룡, 2015; 이전·이호욱, 2015).

지붕 형태는 전체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단위 지붕 종류’의 수에 따라 ‘단일양식지붕’과 ‘결합양식지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한 종류’의 기초단위지붕으로만 구성되는 지붕이고, 후자는 ‘여러 종류’의 기초단위지붕으로 구성되는 지붕이다. 단일양식지붕은 경사요소와 수평요소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사지붕’과 ‘평지붕’으로 나뉜다. 경사지붕은 경사요소로 구성된 지붕이고, 평지붕은 수평요소로 구성된 지붕이다. 또한 결합양식지붕도 경사요소와 수평요소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사-평지붕’과 ‘경사-경사지붕’으로 나눌 수 있다(이전·성화룡, 2015; 이전·이호욱, 2015).

경사지붕은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외쪽지붕을 중심으로 해서 맞배변형지붕, 우진각변형지붕으로 구분된다. 우진각변형지붕, 맞배변형지붕은 근래에 신축된 가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붕 형태에 속한다. 평지붕은 단순평지붕과 눈썹평지붕으로 분류된다. 단순평지붕은 지붕 난간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히 수평면으로 인식되는 지붕이다. 눈썹평지붕은 평지붕 구조에 지붕의 난간 또는 외곽 부분을 경사지게 만들어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마감한 지붕이다. ‘눈썹(eyebrow)’이라는 용어는 건축학에서 눈썹모양의 지붕창 구조부(dormer)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눈썹평지붕의 경사부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그림 2).

가옥에 따라서 단층 가옥과 복층 가옥이 존재한다. 단층 가옥은 지붕 형태를 판단하기가 단순하지만, 복층 가옥은 층간 면적이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가 있어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층간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상부의 지붕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층간 면적이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의 용도와 상관없이 각 층의 지붕 형태를 별개의 지붕으로 모두 인정한다. 만약 모든 층의 지붕 형태가 한 가지의 기초단위지붕으로만 구성되는 지붕이면 단일양식지붕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초단위지붕이 나타난다면 결합양식지붕으로 분류한다. 이때, 베란다로 활용되는 공간은 지붕 형태의 분류에서 수평요소로 취급하여 단순평지붕으로 분류한다.

울릉도 연구대상 가옥 178채의 지붕 형태를 먼저 단일양식지붕과 결합양식지붕으로 분류한다. 단일양식지붕은 ①팔작지붕, ②맞배지붕, ③우진각지붕, ④외쪽지붕, ⑤맞배변형지붕, ⑥우진각변형지붕, ⑦단순평지붕, ⑧눈썹평지붕으로 세분되고, 결합양식지붕은 ⑨맞배지붕/팔작지붕, ⑩맞배지붕/단순평지붕으로 세분된다. 표 3은 9개 연구지역 촌락의 지붕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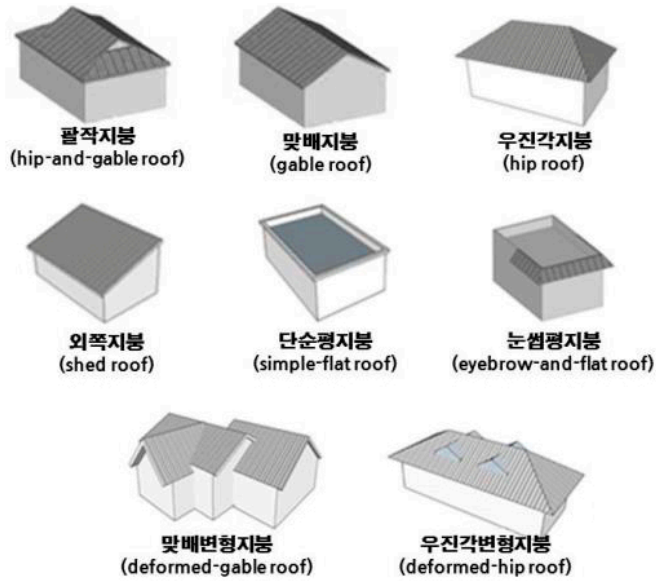


그림 2. 기초단위지붕 형태

표 3.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 연구 지역 번호 | 지붕 형태 | 단일양식지붕 | | | | | | 결합양식지붕 | | 계 | |
|----------------|----------|----------|----------|-----------|----------|-------------|--------------|-----------|-------------|-----|---------------|
| | | 경사지붕 | | | | | 평지붕 | | 경사- 경사지붕 | | 경사- 평지붕 |
| | | 팔작 지붕 | 맞배 지붕 | 우진각 지붕 | 외쪽 지붕 | 맞배변 형 지붕 | 우진각변 형 지붕 | 단순 평지붕 | 눈썹 평지붕 | | 맞배지붕/ 팔작지붕 |
| 1 | 5 | 5 | 0 | 2 | 0 | 1 | 3 | 0 | 0 | 0 | 16 |
| 2 | 2 | 3 | 0 | 0 | 1 | 0 | 2 | 0 | 1 | 0 | 9 |
| 3 | 7 | 1 | 1 | 0 | 0 | 0 | 1 | 0 | 0 | 0 | 10 |
| 4 | 10 | 7 | 0 | 1 | 1 | 0 | 3 | 0 | 1 | 0 | 23 |
| 5 | 7 | 1 | 0 | 0 | 0 | 0 | 5 | 0 | 0 | 0 | 13 |
| 6 | 3 | 4 | 5 | 0 | 0 | 0 | 0 | 0 | 0 | 0 | 12 |
| 7 | 23 | 7 | 4 | 0 | 0 | 0 | 1 | 0 | 1 | 0 | 36 |
| 8 | 9 | 11 | 7 | 0 | 2 | 0 | 2 | 1 | 0 | 0 | 32 |
| 9 | 9 | 7 | 4 | 0 | 2 | 1 | 2 | 0 | 1 | 1 | 27 |
| 계 | 75 | 46 | 21 | 3 | 6 | 2 | 19 | 1 | 4 | 1 | 178 |
| 비율(%) | 42.1 | 25.8 | 11.8 | 1.7 | 3.4 | 1.1 | 10.7 | 0.6 | 2.2 | 0.6 | 100 |

태를 총 10개 지붕 형태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단층/복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가옥 178채 중에 2층 가옥은 7채, 3층 가옥은 1채로 나타나고, 나머지 170채는 단층집으로 나타난다. 측입 여부를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 측입형 가옥은 한 채도 나타나지 않는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팔작지붕인데, 연구대상 가옥 중에 팔작지붕 가

옥은 75채(42.1%)에 해당한다. 9개 촌락 중 6개 촌락에서 팔작지붕이 가장 많은 지붕 형태로 나타난다. 팔작지붕 다음으로 많은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인데, 맞배지붕은 46채(25.8%)에 해당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 창고는 13채이고 식당은 6채인데, 창고 중에는 11채, 그리고 식당 중에는 5채가 맞배지붕을 갖고 있다. 맞배지붕은 창고나 식당 등의 전형적 지붕 형태라고 하겠다. 그리고 결합양식지붕의 맞배지붕/팔작지붕 가옥은 4채(2.2%)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울릉도의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팔작지붕의 가옥이 70.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우진각지붕 가옥은 21채(11.8%)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9채는 관광용 가옥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우진각지붕 가옥은 12채(6.7%)에 불과하다. 우진각지붕 가옥은 9개 촌락 중 5개 촌락에서만 나타난다. 즉, 4개 연구지역 촌락에서는 우진각지붕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단순평지붕 가옥은 19채(10.7%)에 해당하는데, 연구지역의 9개 촌락 중 8개 촌락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연구대상 가옥 중에 외쪽지붕 가옥은 단 3채(1.7%), 눈썹평지붕은 단 1채(0.6%)만 나타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결합양식지붕 가옥은 5채(2.8%) 뿐이다.

3.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에 대한 분석

가옥의 지붕 재료는 가옥 유형을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초가집·기와집·너와집과 같은 용어들은 가옥 유형을 지칭할 때 지붕 재료가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지붕 재료 분류의 기준은 가장 바깥쪽의 지붕 재료(마감재)이다. 시공 절차상 사용된 부수적 지붕 재료는 지붕 재료 분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지붕 재료를 철거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지붕을 시공한 경우, 철거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기존 지붕의 재료도 지붕 재료 분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지붕 재료는 마감재로 사용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단일 재료와 복수 재료로 분류한다. 전자는 ‘한 종류’의 지붕 재료만 사용한 경우이고, 후자는 ‘여러 종류’의 지붕 재료를 사용한 경우이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붕 재료를 조사한 결과, 일곱 종류의 지붕 재료가 나타난다. 단일 재료에는 ①컬러강판(precoated steel plate), ②아스팔트싱글(asphalt shingle), ③시멘트(cement), ④너와, ⑤역세의 다섯 종류가 있고, 복수 재료에는 ⑥시멘트/컬러강판, ⑦시멘트/아스팔트싱글

표 4.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 연구 지역번호 | 지붕 재료 | 단일 재료 | | | | 복수 재료 | | 계 |
|---------|-------|---------|------|-----|-----|----------|------------|-----|
| | 컬러강판 | 아스팔트 싱글 | 시멘트 | 너와 | 역새 | 시멘트/컬러강판 | 시멘트/아스팔트싱글 | |
| 1 | 11 | 2 | 3 | 0 | 0 | 0 | 0 | 16 |
| 2 | 5 | 2 | 2 | 0 | 0 | 0 | 0 | 9 |
| 3 | 8 | 1 | 1 | 0 | 0 | 0 | 0 | 10 |
| 4 | 18 | 2 | 3 | 0 | 0 | 0 | 0 | 23 |
| 5 | 7 | 1 | 5 | 0 | 0 | 0 | 0 | 13 |
| 6 | 12 | 0 | 0 | 0 | 0 | 0 | 0 | 12 |
| 7 | 34 | 1 | 1 | 0 | 0 | 0 | 0 | 36 |
| 8 | 15 | 8 | 2 | 6 | 0 | 0 | 1 | 32 |
| 9 | 13 | 4 | 2 | 3 | 2 | 3 | 0 | 27 |
| 계 | 123 | 21 | 19 | 9 | 2 | 3 | 1 | 178 |
| 비율(%) | 69.1 | 11.8 | 10.7 | 5.0 | 1.1 | 1.7 | 0.6 | 100 |

의 두 종류가 있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붕 재료는 표 4와 같이 컬러강판(69.1%), 아스팔트싱글(11.8%), 시멘트(10.7%), 너와(5.0%), 시멘트/컬러강판(1.7%), 역새(1.1%), 시멘트/아스팔트싱글(0.6%) 순으로 나타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압도적으로 많다.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합석이 컬러강판 지붕 재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석은 녹슬지 않도록 겉에 아연을 입힌 강철판인데, 여기서는 물결 모양으로 골을 만든 골합석만을 의미한다. 시멘트는 단순평지붕 가옥(19채)에서만 사용되고, 시멘트/아스팔트싱글은 눈썹평지붕 가옥(1채)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너와(9채)와 역새(2채)는 관광용 가옥에서만 사용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4.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에 대한 분석

외벽 재료도 가옥의 유형을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외벽 재료는 건물 벽면의 마감재를 의미

한다. 먼저 외벽 재료는 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단일 재료와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복수 재료로 구분한다. 가공하지 않은 암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이라고 칭하고, 암석을 석판으로 가공하여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재라고 칭한다. 적벽돌·타일·석재·돌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흔히 시멘트를 접착제로 사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외벽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만을 사용하여 외벽을 마감한 경우에만, 시멘트를 외벽 재료로 간주한다.

연구대상 가옥의 외벽 재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멘트(27.5%), 사이딩(21.3%), 합석(16.8%), 목재(6.7%), 적벽돌(3.9%), 목재/합석(3.4%), 시멘트/합석(3.4%), 목재/시멘트(2.8%) 등이 많이 나타난다(표 5). 시멘트는 외벽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복수 재료로 시멘트를 사용한 가옥(19채)을 포함하면, 총 68채(38.2%)가 시멘트를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 사이딩은 플라스틱·세라믹·석고·시멘트·금속 등의 자재를 건물 외벽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판재를 총칭하는 것인데, 복수 재료로 사이딩을 사용한 가옥(3채)을 포함하여 총 41채(23.0%)가 사이딩을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 복수 재료로 합석을 사용한 가옥(15채)을 포함하여 총 45채(25.3%)가 합석을 외벽 재

표 5.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 연구지역 번호 | 단일 재료(79.8%) | | | | | | | | 복수 재료(20.2%) | | | | | | | | | | | 계 | | |
|------------|--------------|------|------|-----|-----|-----|-----|-----|--------------|--------|--------|--------|-------|-------|---------|---------|--------|-----------|----------|-----|-----|-----|
| | 시멘트 | 사이딩 | 합석 | 목재 | 적벽돌 | 타일 | 석재 | 역새 | 목재/합석 | 시멘트/합석 | 목재/시멘트 | 시멘트/타일 | 목재/점토 | 점토/합석 | 시멘트/적벽돌 | 사이딩/시멘트 | 목재/사이딩 | 목재/석재/시멘트 | 돌/시멘트/점토 | | 투방집 | |
| 1 | 3 | 4 | 5 | 0 | 2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6 |
| 2 | 4 | 2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 3 | 3 | 0 | 0 | 2 | 0 | 0 | 0 | 0 | 1 | 1 | 2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10 |
| 4 | 9 | 4 | 3 | 1 | 3 | 0 | 0 | 0 | 0 | 1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 |
| 5 | 6 | 0 | 0 | 2 | 0 | 3 | 0 | 0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13 |
| 6 | 4 | 1 | 3 | 2 | 1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 |
| 7 | 7 | 9 | 8 | 1 | 0 | 0 | 0 | 0 | 3 | 3 | 0 | 1 | 0 | 1 | 0 | 1 | 0 | 1 | 0 | 1 | 0 | 36 |
| 8 | 8 | 9 | 5 | 4 | 0 | 1 | 0 | 1 | 0 | 1 | 1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32 |
| 9 | 5 | 9 | 3 | 0 | 1 | 0 | 1 | 0 | 0 | 0 | 1 | 1 | 0 | 0 | 0 | 1 | 0 | 1 | 0 | 0 | 4 | 27 |
| 계 | 49 | 38 | 30 | 12 | 7 | 4 | 1 | 1 | 6 | 6 | 5 | 4 | 3 | 2 | 1 | 1 | 1 | 1 | 1 | 1 | 4 | 178 |
| 비율(%) | 27.5 | 21.3 | 16.8 | 6.7 | 3.9 | 2.2 | 0.6 | 0.6 | 3.4 | 3.4 | 2.8 | 2.2 | 1.7 | 1.1 | 0.6 | 0.6 | 0.6 | 0.6 | 0.6 | 0.6 | 2.2 | 100 |

료로 사용한다. 여기서 함석은 물결 모양의 골이 있는 골함석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수 재료로 목재를 사용한 가옥(16채)을 포함하면 총 28채(15.7%)가 목재를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딩·함석·목재, 혹은 이들의 결합만을 사용하는 가옥이 149채(83.7%)에 달한다는 점에서 울릉도 촌락 가옥은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딩·함석·목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

울릉도 산지 촌락의 가옥 유형을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만을 중심으로 가옥 유형을 고찰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가옥 유형을 고찰한다. 이러한 결합 관계로 규정된 가옥 유형을 통하여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옥 유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41.0%)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②맞배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17.4%), ③단순평지붕-시멘트 가옥 유형(10.7%), ④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 가옥 유형(7.3%), ⑤우진각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6.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의 가옥(147채)이 연구대상 가옥의 82.6%를 차지한다. 연구대상 팔작지붕 가옥(75채) 중에서는 2채를 제외하고 모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시멘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19채)은 모두 단순평지붕 가옥(19채)에 속한다. 그리고 아스팔트싱글을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22채) 중에서 맞배지붕 가옥(13채)이 59.1%를 차지한다.

주요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18.0%)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②-③팔작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7.3%), 맞배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7.3%), ④맞배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5.1%), ⑤-⑥팔작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4.5%), 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사이딩 가옥 유형(4.5%), ⑦단순평지붕-시멘트-시멘트(3.9%) 순으로 나타난다. 이 일곱 가지 유형의 가옥(90채)이 연구대상 가옥의 약 절반(50.6%)을 차지한다.

6. 울릉도 산지와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 유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을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과 비교해서 논하는 것도 울릉도 촌락 가옥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를 중심으로 수행된 촌락 가옥 유형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락의 가옥 유형을 제주도 촌락이나 경남 촌락의 가옥 유형과 비교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즉, 제주도(이전, 2016), 경남 고성군(이전·채민수, 2015), 경남 남해도서(이전·성화룡, 2015), 경남 함양군(이전·이호욱, 2015; 이호욱, 2016)의 촌락 가옥과 비교하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 지붕 형태를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표 7). 첫째, 울릉도 촌락의 팔작지붕 가옥 비율은 제주도나 경남 남해도서의 그것에 비교하면 탁월하게 높지만, 경남 고성군 촌락이나 경남 함양군 촌락의 그것에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 둘째, 울릉도 촌락의 맞배지붕 가옥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의 그것보다 높다. 창고나 식당 등의 건물을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울릉도 촌락의 맞배지붕 가옥 비율은 비교적 높다. 셋째, 울릉도 촌락의 우진각지붕·평지붕·결합양식지붕 가옥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의 그것보다 심히 낮다. 특히 같은 도서지역

표 6.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에 의한 가옥 유형

| 지붕 형태 | 지붕 재료* | 외벽 재료 | 순위 및 점유율** |
|----------------|--------------------------|-----------------------------------------------------|------------------------------------------|
| 팔작지붕 (75채) | 컬러강판(73채)-1순위 (41.0%) | 시멘트(32채) 함석(13채) 사이딩(8채) 목재(4채) 기타(16채) | 1순위: 18.0% 2-3순위: 7.3% 5-6순위: 4.5% |
| | 기타(2채) | | |
| 맞배지붕 (46채) | 컬러강판(31채)-2순위 (17.4%) | 사이딩(13채) 함석(9채) 시멘트(4채) 기타(5채) | 2-3순위: 7.3% 4순위: 5.1% |
| | 아스팔트싱글(13채)-4순위(7.3%) | 사이딩(8채) 기타(5채) | 5-6순위: 4.5% |
| | 기타(2채) | | |
| 우진각지붕 (21채) | 컬러강판(11채)-5순위 (6.2%) | 함석(4채) 시멘트(3채) 기타(4채) | |
| | 너와((7채) | 목재/점토(4채) 기타(3채) | |
| | 기타(3채) | | |
| 단순평지붕 (19채) | 시멘트(19채)-3순위 (10.7%) | 시멘트(7채) 적벽돌(5채) 기타(7채) | 7순위: 3.9% |
| 기타(17채)) | | | |

* 순위는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에 의한 것임.

** 순위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에 의한 것임.

표 7.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에 대한 비교 분석

| 연구 지역 | 지붕 형태 및 지붕 재료 | 지붕 형태(백분율: %) | | | | | 지붕 재료(백분율: %) | | | | | | | |
|-------|---------------|---------------|-------|---------|------|----------|---------------|-------|----------|------|-------|------|-------|-----|
| | | 팔작 지붕 | 맞배 지붕 | 우진 각 지붕 | 평지 붕 | 결합 양식 지붕 | 기타 | 컬러 강판 | 아스 팔트 싱글 | 시멘 트 | 슬레 이트 | 기와 | 복수 재료 | 기타 |
| 울릉도 | | 42.1 | 25.8 | 11.8 | 11.2 | 2.8 | 6.2 | 69.1 | 11.8 | 10.7 | 0 | 0 | 2.2 | 6.2 |
| 제주도 | | 0.5 | 8.8 | 41.4 | 20.2 | 25.2 | 3.9 | 28.1 | 4.5 | 14.8 | 21.0 | 2.1 | 29.3 | 0.2 |
| 경 남 | 고성군 | 46.0 | 6.5 | 14.7 | 24.6 | 4.2 | 4.0 | 45.0 | 0.2 | 20.2 | 16.0 | 6.0 | 8.6 | 4.0 |
| | 남해도서 | 18.4 | 15.6 | 24.7 | 21.6 | 19.2 | 0.5 | 28.1 | 5.7 | 18.4 | 22.1 | 2.1 | 20.8 | 2.8 |
| | 함양군 | 36.5 | 16.7 | 14.4 | 15.1 | 3.5 | 13.8 | 35.3 | 16.7 | 15.1 | 13.0 | 11.9 | 3.0 | 5.0 |

인 제주도나 경남 남해도서의 촌락과 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7). 첫째,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로 컬러강판을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울릉도 촌락에서는 컬러강판 중에서 특히 골합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컬러강판 사용과 사뭇 다르다. 둘째, 울릉도 촌락 가옥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가옥 중에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셋째, 지붕 재료로 복수 재료를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다.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에서 복수 재료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결합양식지붕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표 8).⁴⁾ 첫째, 다른 지역 촌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의 비율이 다른 어떤 외벽 재료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촌락과 비교하면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둘째, 사이딩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다른 지역 촌락의 그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난다. 셋째, 합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이 매우 많은 편이다. 다른 지역 촌락에서는 골합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골

합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은 울릉도 촌락 가옥의 눈에 띄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넷째, 제주도 촌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벽돌이나 석재의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다. 다섯째, 제주도 촌락의 경우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돌로 외벽을 쌓는 경우가 흔하지만,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는 돌을 주요 외벽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로 합석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 지붕 재료로 기와나 슬레이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외벽 재료로 적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사실 등은 운송비용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울릉도에서는 반도부(육지부)에서 건축 자재를 들여오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송비용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울릉도 산지 촌락은 교통이 불편한 데 위치한다.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는 포장도로가 거의 모든 가옥까지 구석구석 놓여 있지만, 도로 폭이 매우 좁고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 건축 자재의 운송에 비교적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7. 요약 및 맺음말

울릉도의 투방집과 우테기는 일찍부터 한국지리학계에 널리 소개되었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울릉도의 투방집

표 8. 외벽 재료에 대한 비교 분석

| 연구 지역 | 외벽 재료 | 단일 재료(백분율: %) | | | | | | | | 복수 재료(백분율: %) | | | | | | | | |
|-------|-------|---------------|------|------|-----|-----|------|-----|-----|---------------|-------|--------|--------|-------|-------|-------|-----|------|
| | | 시멘트 | 사이딩 | 합석 | 목재 | 타일 | 적벽돌 | 석재 | 현무암 | 기타 | 목재/합석 | 시멘트/합석 | 목재/시멘트 | 목재/타일 | 목재/점토 | 점토/합석 | 투방집 | 기타 |
| 울릉도 | | 27.5 | 21.3 | 16.8 | 6.7 | 2.2 | 3.9 | 0.6 | - | 0.6 | 3.4 | 3.4 | 2.8 | 2.2 | 1.7 | 1.1 | 2.3 | 3.4 |
| 제주도 | | 50.9 | 3.5 | - | 0.5 | 7.4 | 0.5 | 1.0 | 9.7 | 0.0 | - | - | - | 9.5 | - | - | - | 17.0 |
| 경남 | 고성군 | 56.3 | 5.2 | - | 1.9 | 1.1 | 33.6 | 0.8 | - | 1.1 | - | - | - | - | - | - | - | - |
| | 함양군 | 44.4 | 15.1 | - | 0.5 | - | 23.3 | - | - | 1.1 | - | - | - | - | - | - | - | 15.6 |

과 우데기는 결코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이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울릉도 촌락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가옥 중에서는 전형적인 투방집과 우데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울릉도 촌락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가옥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에 초점을 두고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가옥은 울릉도 산지 촌락의 농가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노인회관, 교회 건물, 펜션, 민박집, 관광용 가옥 등을 포함하였다.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폐가는 제외하였지만, 일반적인 폐가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였다. 또한 특정 가옥의 대지에 부속건물로 입지하는 창고는 제외하였지만, 특정 농가 대지에 입지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였다. 9개 연구지역 촌락에서 선정된 연구대상 가옥은 총 178채인데(표 1, 그림 1), 이 연구에서는 178채의 연구대상 가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본론을 구성하였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특성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울릉도 산지 촌락의 팔작지붕 가옥 비율이 다른 도서지방(제주도와 경남 남해도서)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고, 오히려 반도부(경남 고성군과 함양군)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팔작지붕 다음으로 많은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인데, 맞배지붕은 창고나 식당 등의 전형적인 지붕 형태로 나타났다.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다음으로는 우진각지붕과 단순평지붕 지붕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붕 재료는 컬러강판, 아스팔트싱글, 시멘트, 너와, 시멘트/컬러강판, 역새, 시멘트/아스팔트싱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압도적으로(69.1%) 많았다. 울릉도 산지 촌락의 지붕 재료로 사용되는 컬러강판 중에는 함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멘트는 단순평지붕 가옥에서만 사용되었고, 시멘트/아스팔트싱글은 눈썹평지붕 가옥에서만 사용되었다. 너와와 역새는 관광

용 가옥에서만 사용되었고, 실제 촌락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연구대상 가옥의 외벽 재료는 시멘트, 사이딩, 함석, 목재, 적벽돌, 목재/함석, 시멘트/함석, 목재/시멘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복수 재료 중의 하나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시멘트는 총 68채, 사이딩은 총 41채, 그리고 함석은 총 45채, 그리고 목재는 총 22채에서 외벽 재료로 사용하였다. 울릉도 촌락에서는 가옥의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딩·함석·목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 가옥 유형에는 ②맞배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 ③단순평지붕-시멘트 가옥 유형, ④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 가옥 유형, ⑤우진각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②-③팔작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 맞배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 ④맞배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 ⑤-⑥팔작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 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사이딩 가옥 유형, ⑦단순평지붕-시멘트-시멘트 순으로 나타났다.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을 제주도,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도서, 경남 함양군의 촌락 가옥과 비교해서 고찰하였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맞배지붕 가옥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우진각지붕·평지붕·결합양식지붕 가옥 비율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컬러강판을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과 기와나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가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사이딩과 함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높다는

주

점, 제주도 촌락의 경우와 같이 적벽돌이나 석재의 사용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울릉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골함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함석을 외벽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주목할 만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지붕 재료 혹은 외벽 재료 등의 건축 자재를 육지부(반도부)로부터 울릉도까지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들이 대체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입지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운송하는 데에도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는 건축 자재의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운송비가 저렴한 건축 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골함석을 지붕/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적벽돌이나 석재를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은 운송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촌락 가옥의 유형이나 특성을 바람·강수량 등의 기후적 조건이나 산지·평지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자연환경과 결부지어 촌락 가옥 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촌락 가옥의 유형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촌락 가옥의 유형은 그 자체가 어떤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 즉 문화이다. 문화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기에 특정한 요인만으로 결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앞으로 울릉도의 촌락 가옥뿐만 아니라 한국 각 지역의 촌락 가옥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촌락 가옥의 유형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축적된다면, 촌락 가옥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훨씬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촌락 가옥 유형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문화지역 구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촌락 가옥 경관의 차이는 문화지역 구분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다음의 논문과 저서는 한국 촌락 민가에 관련된 한국지리학계의 논문이나 저서들이다. 한국건축학계나 한국문화인류학계에서도 한국 촌락 민가에 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기덕·이승호, 2001; 김종혁, 2002; 김향숙, 1991; 박병석, 2000; 박태화, 1998(a); 1998(b); 2002; 2008; 신화경, 1996; 이승호, 2002; 이진, 2011; 이찬, 1975; 임화영, 2009; 장보웅, 1974; 1977; 1978; 1980; 1996; 최영준, 1997; 홍경희, 1985.
- 2) 울릉군 서면에 속하는 태하리는 남양리 서면 면사무소로부터 지형적 장애로 인하여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태하리에는 서면 태하출장소를 두고, 이 출장소가 서면 면사무소의 행정업무를 대신에 처리하게 하고 있다.
- 3) 여기서 관광용 가옥이라 함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옥을 말한다.
- 4) 고성군의 경우,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된 외벽 재료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단일 재료의 통계만을 얻을 수 있고 복수 재료의 통계는 얻을 수 없다. 남해도서의 경우,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외벽 재료에 대한 통계는 얻을 수 없다.

참고문헌

권동희, 2012, “울릉도 지형지”, 한국지형학회지, 19(4), 39-57.

김윤화, 2013, “농촌마을 지붕경관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가로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3), 17-24.

김찬영, 2004, “울릉도 민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5(5), 107-118.

김창환, 2013,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사지리학회지, 23(4), 177-190.

김향숙, 1991, 강원도의 곁집 유형과 그 분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병석, 2000, 중부형 민가 평면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화, 1998(a), “맞배지붕 민가의 발달과 구조”, 국토지리학회지, 32(2), 59-86.

박태화, 1998(b), “맞배지붕 민가의 사진에 의한 연구”, 한국사지리학회지 7, 105-115.

박태화, 2002, “한국·중국·일본 3국 지붕의 변천,”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5(1), 35-47.

박태화, 2008, 동족촌락의 전통민가: 지리학적 고찰, 경북대학교출판부.

박희두, 1997, “울릉도의 자연지리,” 지리학 연구, 31, 27-40.

오남현, 2001,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14-28.

이승호, 2002, “한국 다설지역의 가옥 특성: 민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7(1), 1-14.

이전, 2011, 촌락지리학, 푸른길.

이전·성화룡, 2015, “경남 도서지역 촌락의 가옥 유형에 관한 연구: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4), 660-672.

이전·이호욱, 2015, “경남 함양군 촌락 가옥의 유형에 관한 연구: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7(3), 70-83.

이전·채민수, 2015, “경남 고성군 촌락 가옥의 유형에 대한 연구: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3), 51-61.

이전, 2016, “제주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369-382.

이찬, 1975, “중부지방의 민가형태 연구 개요,” 지리학과 지리교육, 4(1), 27-40.

이혜은, 2009, “1882년의 울릉도의 지리환경,”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 21(2)(통권 38호), 117-131.

이혜은, 2012, “개척기 울릉도의 지리경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4), 13-23.

이혜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독도연구 2006-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호욱, 2016, 경남 함양군 촌락 가옥의 유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화영, 2009, 전통가옥의 유형별 분포 권역에 관한 연구: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보용, 1977, “울릉도 나리동의 투방집 연구,” 지리학, 16, 25-34.

장보용, 1980, “한국의 민가형 분류와 문화지역구분,” 지리학, 22, 41-58.

장보용, 1996,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 보진재.

조성기, 2006, 한국의 민가, 한울.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국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범문사.

황상일, 2012, “울릉도·독도 관광의 현황과 생태관광 기반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5(1), 189-210.

교신: 이전,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이메일: gglee@gnu.ac.kr)
 Correspondence: Professor Jeon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daero 501, Jinju, Gyeongnam, 52828 (e-mail: gglee@gnu.ac.kr)

최초투고일 2016. 5. 19
 수정일 2016. 5. 30
 최종접수일 2016. 6. 2